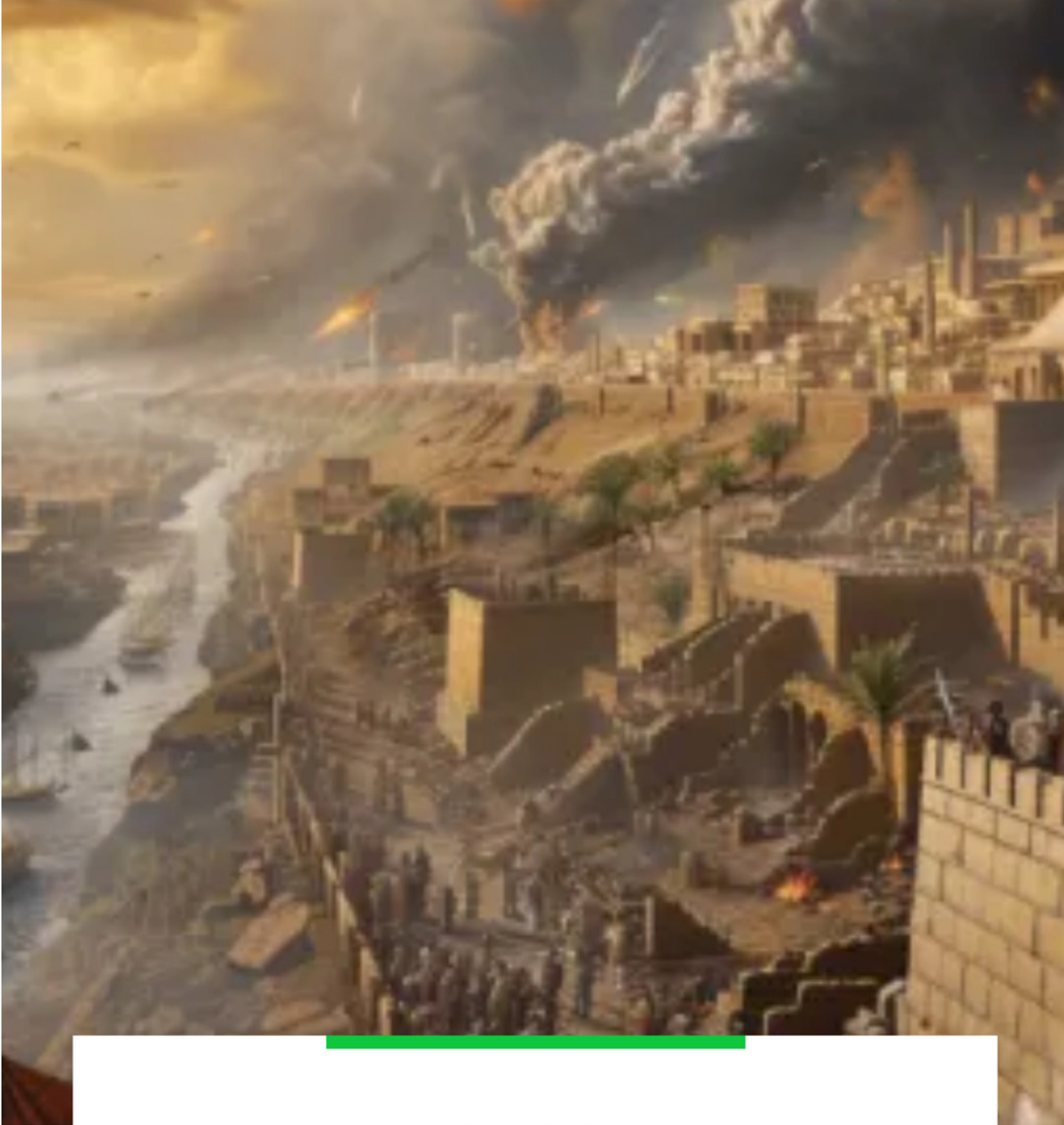




데이빗 영맥주석

나훔서

David Spriritual Commentary

들어가는 말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

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 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나훔서 1장] =====

[나 1:1]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요나와 나훔 선지자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요나와 나훔 선지자는 대략 100년 정도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 때에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나훔 때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비록 요나 때에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지만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타락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 경고하신 것은 앗수르 제국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는 니느웨 도시가 앗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경고' <마사>는 그대로 직역하면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경고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거운 짐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

거운 짐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
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내려 놓
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어깨에 놓여져 있는 무거
운 짐을 내려 주십니다.

“[마 8: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
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
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
더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무거운 짐
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듯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왜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
지 아십니까? 저들이 타락과 교만 때문입니다. 만
일 우리도 타락된 삶을 살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받게 될 것
입니다.

[나 1:2] 여호와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시니라 여호와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
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와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 1:3]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와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나 1:4]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나 1:5]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나 1:6]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나 1:7]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 1:8]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2절 상). '질투하다'<카나>라는 말은 '붉게 물들다'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 얼굴이 붉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다. 이는 우리의 타락된 행위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이 붉어진 것입니다. '질투하다'의 또다른 의미는 '열정을 갖다', '열심을 내다'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열정을 갖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열심이시다는 의미입니다.

니느웨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진노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 여호와와는 보복 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2절 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느웨 성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헤마〉는 '뜨겁다'라는 뜻을 가진 <야함>에서 유래된 단어로써 '불타는 분노'를 뜻합니다. '품다'〈나타르〉라는 말은 '간직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뜨겁기만 합니다. 그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악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나 1:9]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나 1:10] 가시덤불 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나 1:11]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나 1: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나 1:13]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1:14]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 없게 되었음이라

[나 1:15]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

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앗수르 제국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12절 상). 하나님은 앗수르의 모든 우상을 멸절하실 것입니다. "...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14절 중). 앗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가장 주된 것은 '우상' 때문입니다. 앗수르의 우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

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
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
르게 하거니와”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
다.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
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우상들을 파괴하였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는 앗수르의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도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
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귀신들은 마귀 편에 섰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이 아닙니
다. 부모와 자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언뜻보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
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
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들을 상대함이라”

[나훔서 2장] =====

[나 2:1]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나 2:2]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나 2:3]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나 2:4]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나 2:5]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나 2:6]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나 2:7]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상세하게 예언하
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
니..."(1절 상). 벌써 니느웨 성읍에 적이 쳐들어왔
습니다. '파괴하는 자'<메피츠>는 '흠어 버리다', '분산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푸츠>에서 유래되었
습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바벨론군과 메대의 연합
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나훔은 미래
에 있을 니느웨의 멸망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
니다.

거대하고 가장 강력했던 앗수르 제국이 한 순간
에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722
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명성을 유지했
던 앗수르 제국은 남유다를 공격했으나 뜻을 이
루지 못하고 패전했고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자
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기원전 681년) 이후
에 서서히 국력이 쇠퇴해 갔고 내부 반란이 일어
나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바벨론과 메
대의 연합군에 의해 기원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
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악을 행한 나라
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
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

하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나 2:8] 니스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나 2:9]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나 2:10] 니스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낮이 빛을 잃도다

[나 2:11]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나 2:12]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나 2:13]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

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앗수르 제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당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13절 상).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원래 니느웨는 물이 모인 못 같은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8절 상). 물이 많고 호수가 많아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니느웨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10절 상). '공허하다'와 '황폐하다'라는 단어는 니느웨 성읍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한 성읍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황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그 사람 역시 황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훔서 3장] =====

[나 3:1]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
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
니하는도다

[나 3:2] 획획 하는 채찍 소리, 뿜뿜 하는 병거 바
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나 3:3]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음 당한 자의 떼,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나 3:4]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나 3:5]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
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
끄러운 곳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나 3:6]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 거리가 되게 하리니

[나 3:7] 그 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
하며 이르기를 니스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
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
를 구하리요 하리라

나훔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1절 상)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 있을진저'<호이>는 매우 큰 슬픔이나 유감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이 단어는 때때로 '슬프다'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는 니느웨 성을 향한 나훔의 마음이 저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멸망의 길을 가는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마음이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향해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전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어나야 모든 백성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거짓으

로 가득찼기 때문입니다. "...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1절 중). 그들의 거짓은 다른 나라에 대한 거짓이었습니다. 앗수르라는 나라를 최대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여러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주변 나라를 앗수르의 속국으로 만들 때에 더 잘 살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였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4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를 미혹하고 그의 마수루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4절 하). 하나님은 앗수르를 '음녀'로 표현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자는 모두 음녀입니다. 앗수르는 음녀가 되어 여러 나라들을 앗수르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5절 하)라고 앗수르가 받게될 형벌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앗수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국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에게 보란듯이 저들의 더러움이 드러나

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일까요? 앗수르가 행했던 음녀의 일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거짓된 일 때문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나 3:8]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나 3:9]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나 3:10]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나 3:11]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앗수르는 '노아몬'처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8절 상). '노아몬'은 애굽의 매우 유명한 도시였던 '테베'를 가리킵니다. 기원전 2100년경 당대 초고의 도시로 무려 100개의 성문이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었습니다.

"...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8절 중). 성경에서 언급한대로 '노아몬'은 나일 강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성 주위에 많은 운하들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침임을 막을 수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기원전 663년). 니느웨보다 훨씬 방어능력을 갖춘 노아몬도 멸망을 당했는데 니느웨라고 멸망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난 사람도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도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잘 풀리는 사람도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멸망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일 수 있습니다.

구스와 애굽이 '노아몬'을 도왔으나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구스와 애굽은 ...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9절). 주변에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돕는 자가 많을 지라도 멸망당할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도움은 잠시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하십시오. 만일 당신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드리십시오. 앞드려 회개하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사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도록 간절히 요청해 보십시오.

[나 3:12]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나 3:13]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나 3:14]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나 3:15]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 같이 스스로 많이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이 할지어다

[나 3:16]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나 3:17]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나 3:18] 앓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나 3:19]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니느웨의 멸망은 치료될 수 없는 멸망이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회복될 수 없는 멸망이었습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19절 상). '상처'<쉐베르>라는 단어는 <쇼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쇼바르>는 '깨뜨리다', '부수다', '산산조각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로부터 '상처'<쉐베르>는 '분쇄'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니느웨의 상처는 '깨뜨려진 상처'였습니다. 니느

웨의 상처는 '부쉘진 상처'였습니다. 니느웨의 상처는 '산산조각난 상처'였습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처였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당합니다. 상처는 치료되면 괜찮습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나으면 괜찮습니다. 심하게 아플 때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치료가 된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인 상처인 경우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엔 사람이 좌절합니다. 이런 경우엔 낙담이 찾아옵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나눔서

초판발행	2026. 7. 8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여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추진 CHANCE

국제 신학교

결심했으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로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의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